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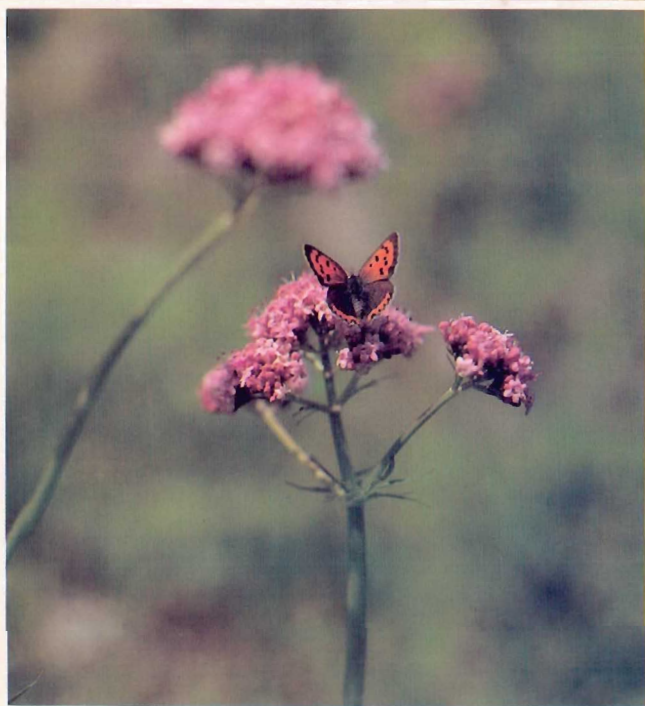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

4

1994

충현의 만나

이사야서 · 에베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 제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4년 4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에베소서 서론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체포되어 가이사
라에서 2년간 억류되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약 2년간 감금생
활을 한다(행 28:30). 그가 로마에 호송된 시기는 AD 61년 봄으로 추
정되는데 63년에 잠시 풀려날 때까지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
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다. 그중 옥중생활 말기인 AD 63년
경에 빌립보서를, 그리고 나머지는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다(엡 1:1). 에베소서의 주
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 아시아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이 있었다. 이러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을 것
이다.

에베소서는 교리편(1:3~3:21)과 훈계편(4:1~6:20)으로 크게 나뉘
어진다. 특히 본 서는 어떤 특별한 지역 교회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의의를 광범위하게 서술하고 있
다. 즉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며(5:23), 새 인류는 그리스도
를 머리로 하는 신비한 통일체로서의 교회(1:10)라는 것이다.

특히 본서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 즉 하나님의 선택
(1:4,5), 화해(2:15), 교회(2:20-22, 5:22-33)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19:19)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날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깝게는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에게요(막 15:32), 다음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나가던 백성들에게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제자들에게 까지 조롱당하신 것입니다(막 15:71).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의 말씀을(눅 23:34), 둘째로, 죽어가는 도둑에게 구원의 말씀을(눅 23:42,43), 셋째로,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요 19:25), 넷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뇌의 말씀을(마 27:46), 다섯째로, 구경꾼들을 향하여 고통의 말씀을(요 19:28), 여섯째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승리의 말씀을(요 19:30), 일곱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눅 23:46).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음을 기억하며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27:60)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적 봉사에 의해서 새 무덤에 장사지내졌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허전한 마음으로 앉아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묻어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묻어버려야 합니다. 온갖 죄와 두려움과 불신과 불순종, 시기, 교만,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죽음은 육체적으로는 쉼(안식)을 줍니다. 세상의 수고를 그치게 합니다.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죄를 묻어버린 사람은 참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옛 생활의 포기과 새 생활의 결단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소망을 줍니다.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내신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무덤 속에 지난 날의 모든 죄를 묻고 새로운 움직임의 소망을 갖는 일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주님의 무덤 앞에 내려 놓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모든 사역에 끝까지 주의 권능으로 옷입혀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20:18)

본문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의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만남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애의 최대 기쁨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영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그의 남은 생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바쳤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잠8:17). 마리아는 성경에서 일곱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려 정신 이상 된 여인에게 획기적인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천한 여자일지라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였을 때 그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맨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 간다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며 그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알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더욱 권능 있는 말씀의 영을 부으소서.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61:1)

이사야 61장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 상한 사람이 위로를 받으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오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해방되며, 슬퍼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이 일을 위해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을 목숨을 걸고 공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소리 높여 부르짖었지만 그의 생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 왕이 쳐들어 왔을 때 유대 노비의 해방을 건의하였을 때, 시드기아 왕과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노비 해방을 굳게 약속하고 해방을 실행하였지만 위험이 사라지자 다시 노비를 잡아들임으로 예레미야의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렐 34장 참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공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이 그 날에 다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눅 4:18 이하 참조).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 위로와 평안, 그리고 구약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달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충현의 성도들이 언제나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62:1)

이사야 62장에 나타난 이 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부르실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의 성격을 의미하며 이름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의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전에 ‘버리운 자’였던 이 성 예루살렘이 이제는 ‘헵시바’(기쁨)이라 불려질 것이며, ‘황무지’였던 이 성이 ‘뿔라’(결혼한 여자)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진짜 남편이 되시고 자신의 사랑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5절).

그러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회복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자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6,7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위해 대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들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빌 2:12-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기도와 같은 기도와 믿음의 대로를 닦는 준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 기도 /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되며 그 마음이 항상 양떼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63:9)

이사야 63장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개선장군으로 오심과(1-6절) 선지자로 대표된 유대민족의 기도(7-19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아주시되 일평생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사 46:3-4). 갓 난아이적이나 유아적이나 어린아이시절, 청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안아주신다고 하였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든든한 일입니다. 둘째, 안아주시되 독수리처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신 32:11, 12).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게 어지럽게 하듯이 성도들을 연단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아니하시고 연단 중에 있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안아주시되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사 49:15). 인간 부모는 너무 바빠서 혹은 나이 많아 기억이 약해지면 자녀를 잊게 되고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옛적 모든 날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나 6·25 때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안아주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민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더욱 안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기도 / 주님, 특히 이 민족을 안아주시사 전쟁과 내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나라, 구제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를 삼아주소서. 모든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온유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8절)

이사야 64장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어떤이는 자신의 국적, 성별, 생김새, 학벌, 부모 등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고전 15:10), 오직 주 안에서 만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살전 5:18)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으니 만큼 그 그릇에 합당한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맡겨진 일이 있는 그릇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도 바로 되고, 교회도 바로 서고, 사회와 국가도 발전을 할 것입니다.

우리 말에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다고(마6:34) 하셨는데 오늘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 주님 저의 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주시고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직원들이 육적으로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2:1)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적 의미가 아닌 신약적인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예배란 단어는 주일예배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금이나, 삿을 받기 위해 일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을 위해 생을 바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얻으면 그 일에 우리의 생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예배란 단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또한 그 몸으로 매일 행하는 모든 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조류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딤후 3:1-5).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란 말은 ‘외형이 아닌 본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로 드러져야 합니다. 영적 예배란 매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좇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소서.

『나의 즐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65:12)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딴 길로 가는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려도 대답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절대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신앙하기 어려운 때에는 좀 보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때 심령에는 천국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절대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복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 분이 주신 66권 1189장 30167절의 말씀을 절대아멘으로 받고 절대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속에 절대복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절대복종의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할 때의 최우선 지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계획, 자녀교육, 직장생활, 교회봉사, 대인관계, 취미 등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 주님, 입으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손과 발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되게 하여주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1:6)

본문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쉽고 간편하며 눈에 바로 보이는 이득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에게 약간의 편리함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찾는 일보다는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죄와 관련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는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와는 단절되고 말씀과는 연결되어서 인정받고 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말씀에 의지하여 죄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며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생활하는 일치된 삶을 살게 하소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65:17)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을 미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의 문명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져 왔고 지금 우리는 문명의 혜택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는 인간의 발전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없는 나라요, 영생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요, 헛수고로 인한 허탈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원수가 없는 나라요, 살육이 없는 나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부르면 응답이 있으며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새로운 나라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특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생각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 기도 /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정결한 생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져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66:2)

본문은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드러지는 예물이 얼마나 가증한 것 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없이 드러지는 예물은 살인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는 외적인 예배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목전에서 조차도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으로 통회하며 악에서 떠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싫은 것도 좋은 척하고, 좋은 것도 안좋은척 함은 물론이요, 속마음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진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없이 겉으로만 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외형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마음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십니다. 임신한 여인이 구로하기 전에 순산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임하게 하십니다. 드러낸 외형적인 물건과 행위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는 우상적 행위를 버리고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각 교구 구역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66:19)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지금부터 2700여년 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19절에서 도피한 자들이 멀리 이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지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 우리는 받은바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육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주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죽어가는 이웃을 가슴에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남녀전도회가 눈을 들어 타락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1:12)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은 완벽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사”란 구절은 우리를 곤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켜 주는 말입니다. 즉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특별한 대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괴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일되어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먼저 희생하는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안에 감사하며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원들이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4:24)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불순종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헌신없는 제사를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매일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므로 드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한 영혼들이 치료를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1:18)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도 속에서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17절). 이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성도는 이 목적에 대해 항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었습니다(히3:15-19).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영적인 눈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어떤 고난이나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1:16).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향한 부르심의 소망입니까? 삶의 축복에 집착하는 성도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소유한 영적인 승리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 기도 / 주여 오늘도 하루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주는 성도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사단의 권세를 떨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인도네시아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떨며 떠나가게 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2:12)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많은 자들이 반대하고 그를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흥계를 꾸미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군왕들’이란 다윗 왕 당시 주변 국가들의 군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관원들’이란 군왕들 밑에 속해 있던 고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헬리어:그리스도)인 이스라엘왕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소롭게 여기시고 대적들에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6절). 이 말씀은 대적들이 땅에 속한 세상의 왕권으로 도전해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우주적 왕권으로 그들을 압도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시 다윗을 대적하던 열방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부순다는 심판의 말씀(9)을 이루셨습니다(삼하8:3, 6:10:18).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다윗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최고 주권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이자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역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통치를 기다리는 성도의 하루가 됩시다.

▶ 기도 /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들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2:10)

바울은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1:20)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살려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입니다(1절). 허물은 자범죄(自犯罪)요 율법의 위반이며, 죄는 아담의 유산인 원죄(原罪)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본질적인 성향 자체입니다. 둘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정황은 노예 상태입니다. 공중의 권세잡은 자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욕욕을 좇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간의 육적 본성을 가리킵니다(2절).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는 자들입니다(3절).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인간의 의지나 공로는 구원을 위해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오직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길을 주셨습니다(8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 기도 /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을 통하여 돕고 있는 학생들과 수단인들이 먼저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2:21)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형성과정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의 결과로 형성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다름아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남녀노소 모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소속감을 갖고 주인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터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20절). 이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에 근거한 확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서게 될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습니다(22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 개개인들과 함께 계심을 말하며 특히 신자의 전체인 교회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와 교회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 기도 / 항상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속이지 말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6)

바울은 본문을 기록할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한 마디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하여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실체의 비밀, 즉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즉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까지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밧모섬이라는 아주 험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라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사명의 삶을 깨달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함이 없이 묵묵히 충성을 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존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안식령 선교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3:19)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15절).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15절). 특히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간절한 기도의 형태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많이 취한 기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솔로몬 왕이 화려한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대하 6:13). 셋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고(16절), 그리스도의 내주를 기도했고(17절), 특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17-19절).

한 마디로 바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만을,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 더 성숙되어져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더욱 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 기도 / 기도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의 언어의 탁월한 진보와, 믿음의 눈을 더 밝히셔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128:1)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으며, 그 복이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여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 도(道)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마음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환경보다 더 우선적인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첫째,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둘째, 아내(아내의 경우 남편)로 인한 보상이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모든 농부들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부부의 사랑만큼 가정에 복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자녀들이 잘되는 복이 임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제공해 주는데, 어린 감람나무는 그 가정의 희망이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손들이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창수 목사님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수리남의 사회적인 안정(주유중단으로 혼란 예상)과 정치적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4:1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먼저는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한결같이 믿음과 생활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믿음과 생활의 하나됨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비결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을 강조하므로 서로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며, 하나 되어야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원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인 구역과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게 되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과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길은 믿음과 생활이 하나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기도 /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세워주며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유병세 선 교사의 새로운 사역지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3:8)

본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성을 떠나는 피난길에 쓴 아픔의 시입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것도 서러운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웃음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권에 눈이 멀어 군사를 모아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추종자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와 믿음대로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성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구원은 주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의지할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올 줄로 확신합니다.

▶ 기도 / 건고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됨을 이루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바쁜 생활 중에도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4:23,24)

본래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혹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대로 행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4:25)고 했습니다. 둘째, 새 사람은 형제에 대하여 분을 품지 않습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 새 사람은 근면하게 일합니다. 도적질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28절) 넷째, 선한 말을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29절) 더러운 말을 입에 품지도 말고 입밖으로 토하지도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합니다. 다섯째, 용서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32절)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감사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5:4).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기도 /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김형선 ·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5:8)

거듭난 사람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적당히 점점 개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서 새사람이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생활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쓰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고 추하고 음란한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지. 누추한 말을 버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른 도덕적 생활을 합니다. 본문의 3-7절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적 부도덕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더러움입니다. 부정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누추한 행동입니다. 누추하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행동을 말합니다. 넷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특히 물질에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리 안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립니다. 감사가 넘치고 진리 안에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 갑시다.

▶ 기도 /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이 더욱 깨끗하여 지기를 소원하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가 먼저 현지인들과 친밀해지며 진실한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게 하소서.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5:18)

“성령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성령충만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성령충만은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성령충만도 일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충만입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한번입니다. 그러나 성령충만은 계속입니다.

성령충만한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교제하는 삶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5:19)라고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화답합니다. 교제를 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잘하고 친구와 교제도 잘 합니다. 또 예배하는 삶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5:19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충만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5:20)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충만한 사람은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5:21)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도취로서 성령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충만한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6:7)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인정 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한 생활을 하며 모든 경우에 성도답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장래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건치 못한 요구를 함으로 노엽게 해서는 안되며,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외모 즉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외모를 보고 그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고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경건한 식구들이 모인 참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가정과 사회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북한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하소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2:4)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1:4)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맥추절(출 23:16), 칠칠절(출 34:22), 혹은 초실절(민 28:26)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에는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었으나 신약시대에는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 자신(성령)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령강림은 그리스도의 승귀(昇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준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제자들의 태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들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즉 연합했습니다. 셋째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충만함을 받은 직접적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죠했고 타락한 모습으로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충성스런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공의를 위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6:13)

본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가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어야 합니다(14절).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영적 기준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갈등과 전쟁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임하는 곳마다 평안(shalom)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온갖 악한 꾀계와 유혹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우리의 확실한 신분을 보장해주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써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필요할 때 말씀을 활용하므로 사탄을 제압하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은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등 우리의 결심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훌륭한 군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루를 승리하도록 합시다.

▶ 기도 /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5월에도 함께 하시어서 오직 위를 향하여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3 과

스데반의 순교

· 성경본문 : 행 7: 54-60

· 중심요절 :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60)

· 찬 송 : 204장, 205장

1. 서 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부족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크든 작든 다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시간 스테반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성령에 충만한 뜨거운 말씀과 사도들의 열심으로 급속히 부흥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은 그들을 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돌볼 일곱 명의 집사를 택하여 교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 스테반과 빌립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스테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스테반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에서 처음에 뽑힌 집사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께 철저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열심히 하였습니다.

2) 집사직은 원래 교회의 행정을 돌보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본다는 것, 특히 모든 교회의 질서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스테반과 빌립 집사는 교회에서 맡겨진 살림살이를 잘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스테반은 본문에 기록된대로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스테반 집사와 빌립은 맡겨진 교회의 행정 외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아 말해 보십시오.

3)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 들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스테반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스테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에게 죽음의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스테반은 돌을 던지는 군중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의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은 누구이고, 승리한 결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4. 삶의 적용

1)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우리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 직분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해 봅시다.

2) 우리들은 스테반과 빌립 집사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믿음도 약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스테반 집사를 통하여 받는 도전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3) 오늘 내가 감당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맡겨진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딪치는 어려움을 감사하며 이겨 나가야 합니다. 스테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넓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까?

5. 결 론

스테반이 쓰러진 곳에 바울이 세워집니다. 비록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수확이 있습니다. 한알의 밀이 썩은 곳에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빛진 자라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빛진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제 14 과

영적 예배

- 성경본문 : 롬 12:1-2
- 중심요절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 찬 송 : 46장, 356장

1. 서 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무엇이며 우리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으로 진리와 신앙의 글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드렸으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께 우리들의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 본문 관찰

1) 예배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드려져야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나의 겉과 속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태도는 온 마음, 온 목숨, 온 힘,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말해 봅시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생활, 생각, 뜻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2) 예배자는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생활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영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면서 죄악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삶의 적용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5. 결 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예배는 예배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하여지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갖는 경건성이 우리들의 모든 생활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 지도록 합시다.

제 15 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

· 성경본문 : 요 4: 20-26

· 중심요절 :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 찬송 : 353장, 361장

1. 서 론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참된 자세는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림으로써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잊고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 곧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거나 예배의 마음이 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다른 모든 생활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의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배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먼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장소의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차이 뿐이라고. 과연 예배의 차이는 장소라는 형식적인 차이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점에 있을까요?

3. 본문 관찰 및 토의

1) 예배에는 형식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분리하여 나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엄격히 경계하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의 예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러지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완전한 예배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간의 우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드릴 곳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말해 봅시다.

2) 예배에 있어서는 본질적 요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것은 예배의 장소라는 형식적 요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완전한 예배는 영적으로 드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 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난 믿

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곧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며 더욱 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절실한 것을 말해 봅시다.

4. 삶의 적용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과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에 젖어 들고 우리도 모르게 알맹이는 놓친 채, 껍데기만 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생활은 때로 형식만 있고 본질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의 예배생활을 살피야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5. 결 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 16 과

가정에 내리신 복

· 성경본문 : 시 128: 1-6

· 중심요절 :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시128:5)

· 찬 송 : 305장, 371장

1. 서 론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을 때 인생이 복되고, 가정에 어려워질 때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현실의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와 심지어는 깨어지는 가정이 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때에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과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2. 본문배경 연구

본문 시편 128편은 가정을 위한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가족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도록 합시다. 아울러 아담과 하와가 꾸렸던 인류 최초의 가정이 행복을 누린 때가 언제였고, 언제 그 가정의 축복이 깨어지게 되었는가를 기억하여 보면서 본문을 살펴 봅시다.

3. 본문 관찰

1)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쟁이들이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갖는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물려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참으로 복된 가정의 필수적 토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가정의 가장 속에 있어야 하고, 아내에게 있어야 하고, 자녀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점에서 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때 첫째로 본인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둘째, 그는 하는 일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남에게 구걸하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하지도 않고 그의 정직한 수고 위에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삽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셋째, 그의 가정에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를 기쁘게 합니다. 넷째, 그는 교회의 돌보아 주심과 교제를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의 가정은 교회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훈련받아 갑니다. 이 모든 일이 가정의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진실로 큰 것입니다. 다섯째, 이와같은 가정이 그의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그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통한 평화와 사회의 안정은 수많은 군대보다도 귀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가 수고한 축복들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말

해 봅시다.

4. 삶의 적용

가정은 작은 나라입니다. 주인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조상들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 집안이 화평합니다. 잘못된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툼과 불만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에서 주인으로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주인이 있는 경우를 말해 봅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는가 돌이켜 봅시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에서 고쳐야 할 모습들을 생각하고 변화에 대한 결심을 가집시다. 이 문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합시다.

5. 결 론

복된 인생을 누리기 위하여서 가정의 행복이 필수적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의 축복이 있고, 사업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17 과

성령충만

· 성경본문 : 행 2: 1-13

· 중심요절 :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 찬 송 : 173장, 179장

1. 서 론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가르치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 등 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이 가진 힘은 약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후 첫번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오순절이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처음 오순절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오순절날이 성령충만을 받은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약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을 특징짓는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2)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하였는데 전혀란 말은 잡념없이 순결한 마음을 바치는 기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며 기도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충만을 받게 된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3) “급하고 바람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바람과 같이 어느 곳이나 어느 때에든지 자유로이 출입하시며 뜻하시는 바를 이루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복음을 싣고 어느 곳이나 들어가시고 인간의 마음 속까지 들어 오시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 강권적인 바람 소리와 함께 바람처럼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신다고 세례 요한은 예언하였습니다(성경구절:). 시내산에서 계명이 불가운데서 부어진 것처럼 복음도 불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성경구절:). 성령은 불처럼 마음을 녹이시고, 더러운 찌꺼들을 사르고, 영혼 속에 경건한 열정을 불일듯 만드십니다. 불 가운데서 영적

인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던지시는 불입니다(성경구절:). 이 불은 혀와 같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갈라진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뉘어 나타나지만 근원은 하나에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충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삶의 적용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신의 위치에 올려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성령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우리들 생활 속에서 성령충만함을 받고 성령충만한 생활을 살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하여 줍시다.

5. 결 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합시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 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